

9회 시원한 만루포 ... 한승택의 뒤집기 한판승



KIA 한승택이 27일 한화생명아이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역전 만루포로 주전 어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8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 출전한 한승택.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화에 8-5 승리 이끌고 포수 경쟁에 유리한 고지 양현종 5.2이닝 2실점 호투 김석환 시범경기 2호 홈런 28·29일 광주서 SSG와 2연전

‘호랑이 군단’이 한승택의 만루포로 재역전승을 거뒀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대전 한화생명아이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에서 8-5 승리를 거뒀다. 기대했던 시원한 타구들이 쏟아졌다. 타석으로 돌아온 황대인이 중전안타와 희생플라이로 2타점을 올렸고, ‘신형 거포’ 김석환이 시범경기 두 번째 홈런을 장식했다. 방망이 침묵으로 애를 태웠던 한승택은 마무리 정우람을 상대로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그라운드를 돌았다.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운 KIA가 2회 먼저 점수를 만들었다. 선두타자 나성범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최형우의 중전안타로 무사 1·3루. 황대인이 우측으로 공을 보내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4회말 양현종이 터크먼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1-1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 6회말 실점이 올라갔다. 양현종이 선두타자 장운호와의 승부에서 3루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를 허용했다. 정은원의 우익수 플라이로 1사 3루, 최재훈의 우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양현종이 5.2이닝 4피안타(1피홈런) 7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고 물러났다. 1-2로 뒤진 7회초 다시 KIA의 타선이 움직였다. 선두타자 김선빈이 2루타를 기록하고 대주자 최

정용과 교체됐다. 나성범의 3루 땅볼로 1사 3루, 최형우도 2루 땅볼로 돌아섰지만 황대인이 중전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타점을 추가했다. 이어 김석환이 타석에 섰고 김재영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장식했다. 4-2가 됐지만 KIA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하준과 박건우가 2개의 볼넷과 3개의 안타로 3실점을 허용하면서 4-5. 한화는 1점 앞선 9회초 베테랑 정우람을 마운드에 올렸다. 선두타자 이우성에 이어 대타 나지완의 연속 안타가 나왔다. 황대인의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멀리 뜬 사이 주자들이 움직이면서 1사 2·3루, 김석환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다. 이어 앞선 시범경기 14타석에서 1안타에 그쳤던 포수 한승택이 타석에 섰다. 초구 스트라이크에 이어 볼 3개가 연달아 들어왔다. 5구째 헛스윙으로 풀카운트가 됐고, 한승택이 6구째 높은 직구에 배트를 휘둘렀다. 맞는 순간 홈런인 큰 타구가 나오면서 한승택이 시범경기 두 번째 안타를 역전 만루포로 장식했다. 장현식에 이어 9회에 ‘좌완 루키’ 최지민이 마운드에 올라 안타 하나는 내줬지만 1이닝을 실점 없이 막으면서 경기는 8-5, KIA의 승리로 끝났다. 포수 고민 중인 김중국 감독에게 한방으로 어필한 한승택은 “앞에 (김)석환이와 어렵게 승부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타석에 들어섰다. 힘 빠고 가볍게 쳐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자고 생각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홈런 소감을 밝혔다. 한편 26일 비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KIA는 27일 한화전을 끝으로 이번 시범경기 일정 마무리했다. KIA는 28일 오후 6시 그리고 29일 오후 1시 챔피언스필드에서 SSG를 상대로 시범경기 마지막 2연전을 갖고, 베스트 라인업을 선보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AE 꺾고 1위 지키겠다”



축구 대표팀 손흥민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UAE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축구 대표팀 출국 내일 아시아 예선 최종전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벤투호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아시아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장도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23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UAE로 출국했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보르도) 등 태극전사 23명과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스태프가 9시간 넘게 걸리는 이번 원정길에 올랐다. 공격수 조규성(김천)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집 해제되면서 대체 발탁된 이종준(헤르타 베를린)은 UAE에서 대표팀에 합류한다. 벤투호의 이번 최종전 목표는 승리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를 수성하는 것이다. 한국(승점 23·7승 2무)과 2위(승점 22·6승 1무 1패) 이란의 격차는 승점 1에 불과해 한국이 UAE전에서 지거나 비기면 다시 1위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연합뉴스

한국은 29일 오후 10시 45분(한국시간) UAE 두바이의 알막툼 경기장에서 UAE를 상대한다. 이란은 같은 날 레바논과 맞붙는다. 한국은 홈에서 치른 이란과 9차전에서 손흥민과 김영권(울산)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벤투 감독은 이 기세를 유지하면서, 선수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과 부상 등으로 허약해진 중원 전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벤투호의 미드필드진 핵심 자원인 황인범(카잔)이 발가락 부상으로 이번 A매치 기간 소집되지 않은 가운데, 김진규와 백승호(이상 전북)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전열에서 이탈했다. 대체 선수로 고승범(김천)과 원두재(울산)가 소집됐으나 원두재는 부상을 당해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벤투호는 이번 원정에서 부상 방지도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3위(승점 9)에 있는 UAE는 4위(승점 8) 이라크, 5위(승점 6) 레바논과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3위 자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경쟁한다. 따라서 UAE는 한국을 상대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UAE 선수들의 열의가 지나쳐 태극전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승리 행진·전남드래곤즈 무패 행진

광주, 충남아산에 2-1 승리 전남, 안산과 1-1 무승부

3연승에서 멈췄던 광주FC가 승리 행진을 재개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코로나19 약제에도 승점 1점을 더했다. 광주FC가 지난 26일 광주죽우구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7라운드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전반 37분 ‘원발의 달인’ 이요뜸의 원발이 움직였다. 오른쪽 측면에서 맞은 프리킥 상황에서 이요뜸이 키커로 나서 직접 슈팅을 시도했다. 이요뜸의 원발을 떠난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충남안산의 골대를 뚫었다. 후반전에는 득점 공동 1위 헤이스와 이견희가 부지런히 움직였다. 후반 9분 헤이스의 원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박주원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19분에는 이견희가 이요뜸의 크로스를 받아 몸을 날리며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비껴났다. 이어 이견희가 이요뜸이 띄운 공을 다시 헤더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골대에 미치지 못했다. 후반 24분에는 이견희가 헤이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다. 몇 차례 기회를 놓친 이견희는 후반 29분 무릎 부상으로 실려 나왔다. 이견희를 대신해 허술이 투입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광주가 실점을 기록했다. 충남아산의 강민규가 수비수 맞고 흐른 공을 잡아 오른쪽으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1분 기다렸던 골이 나왔다. 원발로 골을 만들었던 이요뜸이 오른쪽으로 공을 올렸고, 중앙에 있던 허술이 머리로 헤이스에게 공을 넘겼다. 가슴으로 공을 잡은 헤이스가 이내 오른쪽으로 충남아산의 골망을 흔들면서 2-1을 만들었다. 헤이스의 시즌 4호골. 광주가 추가 시간 4분을 잘 지키면서 헤이스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드래곤즈는 같은 날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4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근 5경기 무패(3승 2무) 행진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비상 상황 속 전남은 4-5-1로 안산을 상대했다.



광주FC의 이요뜸이 지난 26일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 프리킥골을 넣은 뒤 헤이스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골키퍼 김다술을 중심으로 김태현, 고태원, 장준혁 그리고 새로 영입한 재일교포 한호강으로 수비진을 구축했다. 박인혁, 장성재, 전승민, 김현욱으로 중원을 채운 전남은 이종민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내놨다. 선제골은 안산의 몫이었다. 신재혁이 오른쪽에서 티아가고 넘겨준 공을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눈스톱 슈팅을 하며 선제골을 장식했다. 지난해 K리그에 데뷔한 신재혁의 프로 데뷔골.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신재혁은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데뷔골을 장식했다. 이날 신 감독은 안산의 인도네시아

출신 선수 아스나위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선제골은 내줬지만 경기 흐름은 전남이 주도했다. 70%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거센 공세를 펼쳤지만 좀처럼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전남이 후반 31분 페널티킥으로 어렵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카차라바가 페널티지역에서 안산 수비수 권영호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페널티킥이 선인되자 카차라바가 키커로 나서 골키퍼를 속이고 오른쪽 골대를 뚫었다. 이후 추가골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호주 출신 중앙 수비수 아론 로버트 칼버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호주 출신의 중앙 수비수 아론 로버트 칼버(26·Aaron robert calver·사진)를 영입했다. 광주는 27일 “수비 강화를 위해 호주 퍼스 글로리에서 활약한 수비수 아론을 아시아권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아론은 186cm·76kg의 체격을 지녔으며 안정적인 볼처리와 수비 리딩, 강력한 헤더가 장점으로 꼽힌다. 또 정확한 킥과 빌드업으로 공수 전반에 다양한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론은 2012년 호주 A리그 시드니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으며, 7시즌을 뛰면서 두 차례 리그 우승(2016-2017, 2018-2019)과 2017 컵대회 우승을 경험했다. 이후 2019-2020시즌 웨스턴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으며 지난해 퍼스 글로리에 입단해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팀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호주 U-17 대표팀에서도 13경기에 출장해 2골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